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이근 李 根

(www.keunlee.com)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장
Council Member (세계경제포럼)
Member (유엔본부 개발정책위원회)
국제숨페터학회장; 2014년 숨페터상 수상자
민간위원 (동반성장위, 국가지식재산위)

이 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슈페터학회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사) 경제추격연구소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박사.
세계은행 컨설턴트,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영국 애버딘대 교수;
Council Member, World Economic Forum
연구 분야: 경제추격론, 기업조직, 기술혁신, 산업정책, 중국경제

2015년: 학술원상 수상
2014년: 슈페터 상 수상 (Int'l Schumpeter Society)
2010년 동아일보 창간 90년주년 기념 선정: '한국을 빛낸 100인'
2009년 시장경제 대상 수상 (우수도서),
2009년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경제경영도서),
2008년 서울대 제1회 학술연구상 수상,
2007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우수학자 (국가석학)에 선정
2005년 한국경제학회의 청람학술상,
1998년 매경 이코노미스트 상 수상.
1997: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명인사전) 등재.

기술경제 분야의 대표 국제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인,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박규홍 외 경제연구원 연구진

경향신문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박규홍 외 경제연구원 연구진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격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한국경제 전략!

- 특장: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 고령화와 재정,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은 무엇인가?
- 한국도 일본처럼 청년 실업이 일어날까?
-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의 길은 무엇인가?
- 2018 부동산, 안정인가 추락인가?
-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 공유경제의 신모델을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 이베노믹스와 세 개의 화살, 성공한 전략인가?
- 핀테크 시장의 핫 키워드, 블록체인과 무한급 상승?
- 브렉시트 과정의 영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시험대에 오른 2018년 한국경제 전망은?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경향신문

작년 2017년의 키워드

- 1) 경제적 불평등/포용적 성장-> 새 경제패러다임의 모색,
- 2) 트럼프 당선 이후 중미갈등
- 3) 4차 산업혁명이었고,
- 4) 국내경제: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

=>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적절한 선정

- 1) 불평등/새 패러다임의 필요성-> 정권 교체로
- 2) 중미갈등은 강대국 간의 직접적 갈등으로 가기보다 한반도를 무대로 간접/대리전-> 사드갈등 및 북핵위기의 강도를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고 그 피해자는 한국경제
- 3)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큰 영향력; 현재도 진행형;
- 4)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은 8.2 대책으로 현실화

2018년의 키 워드

한국경제:

중장기: 일본은 한국의 미래?
잠재성장 지속하락 (=회색 코벨소)
현재 = 외화내빈
단기: 소득주도성장 과 혁신성장
계속 진행: 중국과 4차혁명

세계경제:

미일의 재부상과 중국의 감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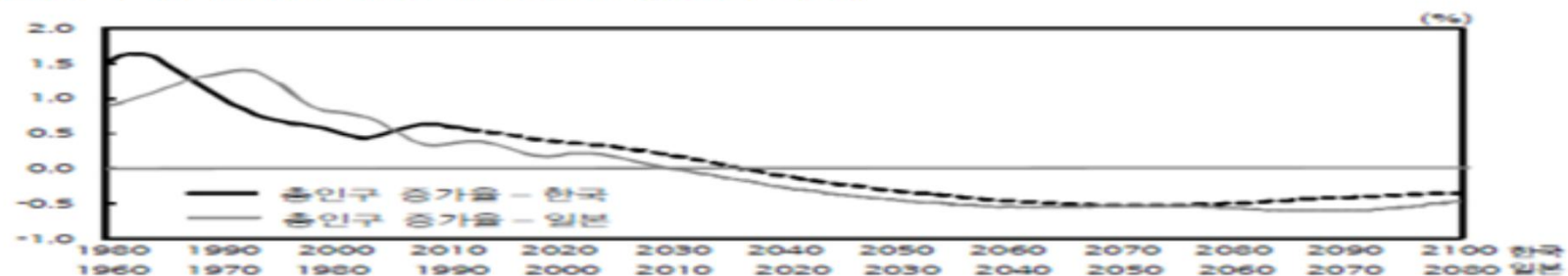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전철을 밟을 것인가

예) 인구추세 매우 비슷:

일본: 1990 0.5% 2010년부터 절대 감소
한국:20년 시차: 2010 0.5%대, 2030부터 절대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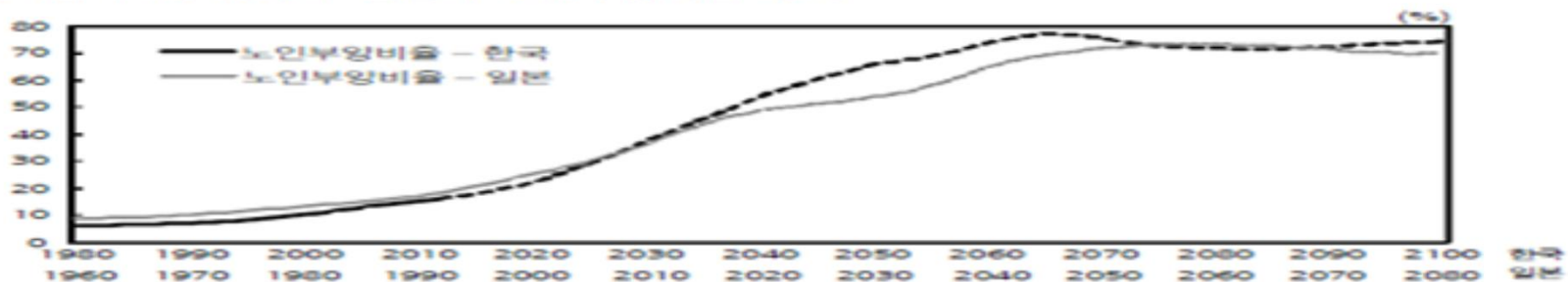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증가율 추이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그림 1-2] 한국과 일본의 노인부양비율 추이



주: 실선은 실측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 한국과 일본의 재정비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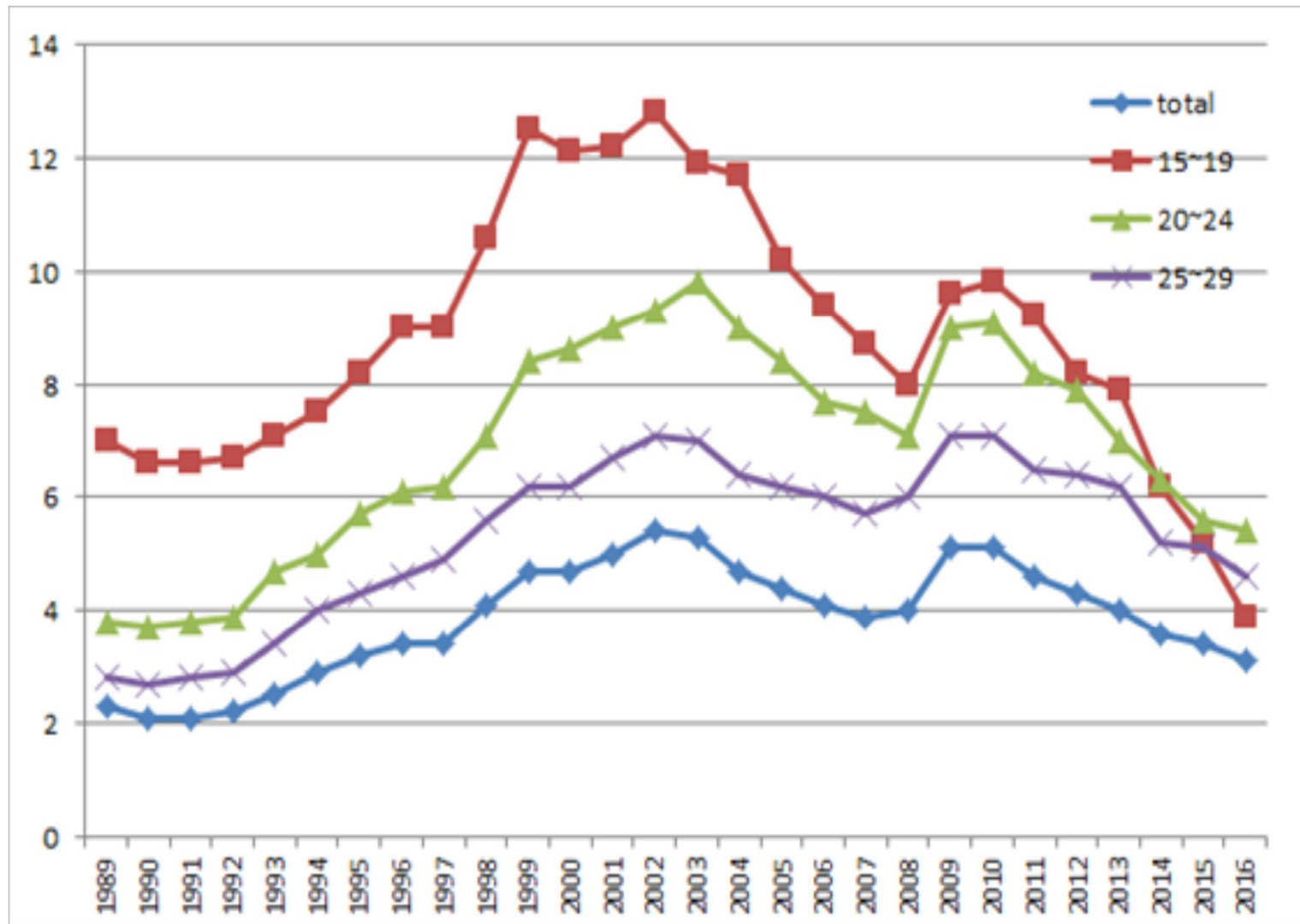
	구조적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복지지출
일본 (1990-94)	-1.3	70.9	19.9	32.7	12.8
한국 (2010-14)	0.6	33.8	18.2	31.9	9.6
일본 (2010-14)	-7.8	212.9	17.0	41.8	22.4

일본은 재정 지출 증대로 대응 -> 재정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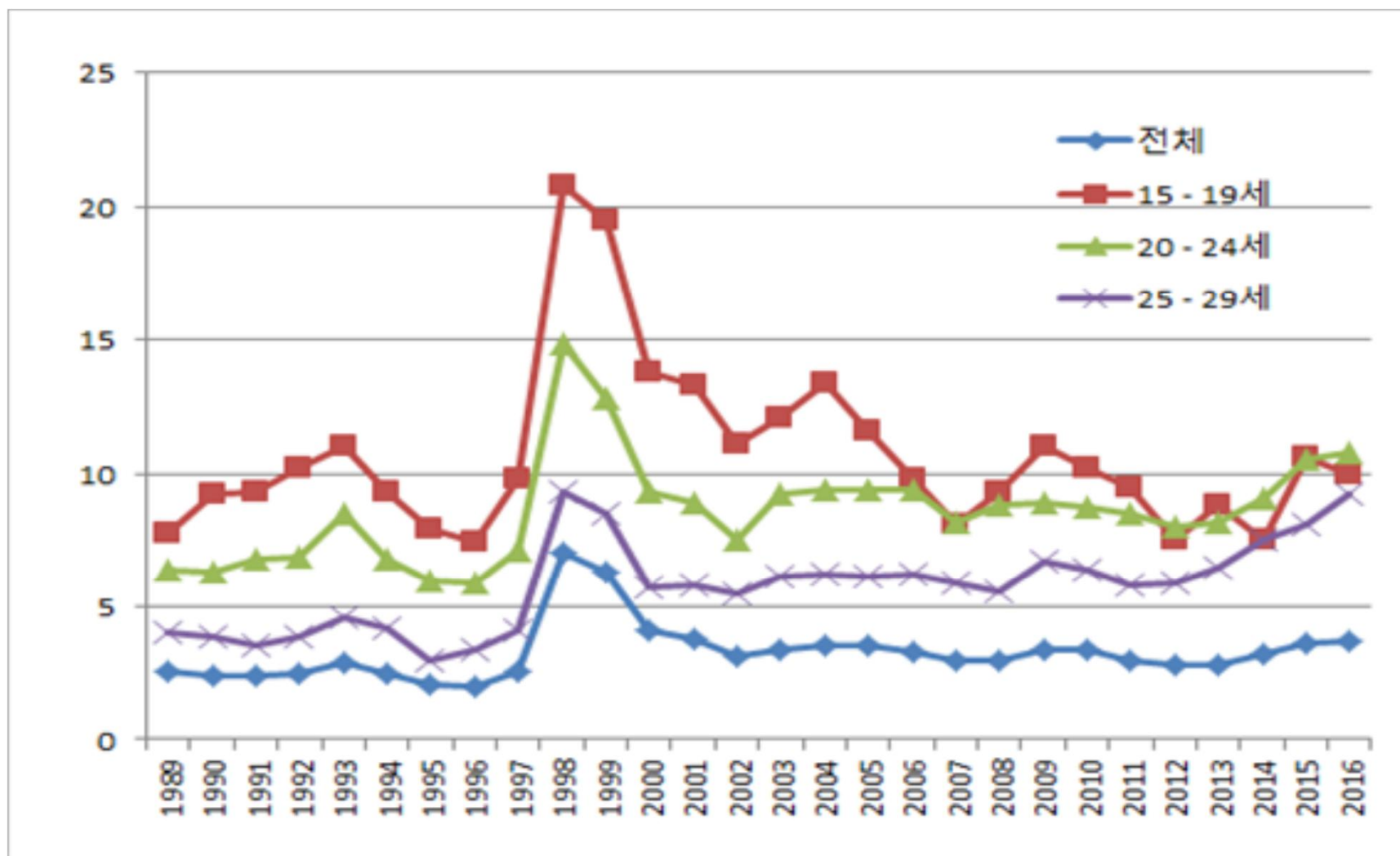
, 98년 2002년 동안 104조엔의 공적자금 투입, 제로 금리

일본의 청년층 실업률의 추이 (1989~2016):

한국이 닮고 싶은 일본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 (1989~2016)



한국과 일본의 닮은 점 다른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가장 큰 차이

- 1990년대 일본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 재정적자
- vs.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

2) 사회보장성 지출: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음.

- 일본: 1990년대 이미 GDP대비 12.8%의 복지지출 비중이 20년 후 거의 두 배가 되었음.
-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영향으로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 기초노령연금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 현재 10%대 미만의 복지지출은 증가할 필요가 있지만 증가속도가 문제될 수 있음

3) 일본의 실수: 경기부양으로 대응: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고령화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을 단기 부양으로 대처

-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친 점이 있음. 연금 및 건강보험 문제등

4) 한국은 일본의 전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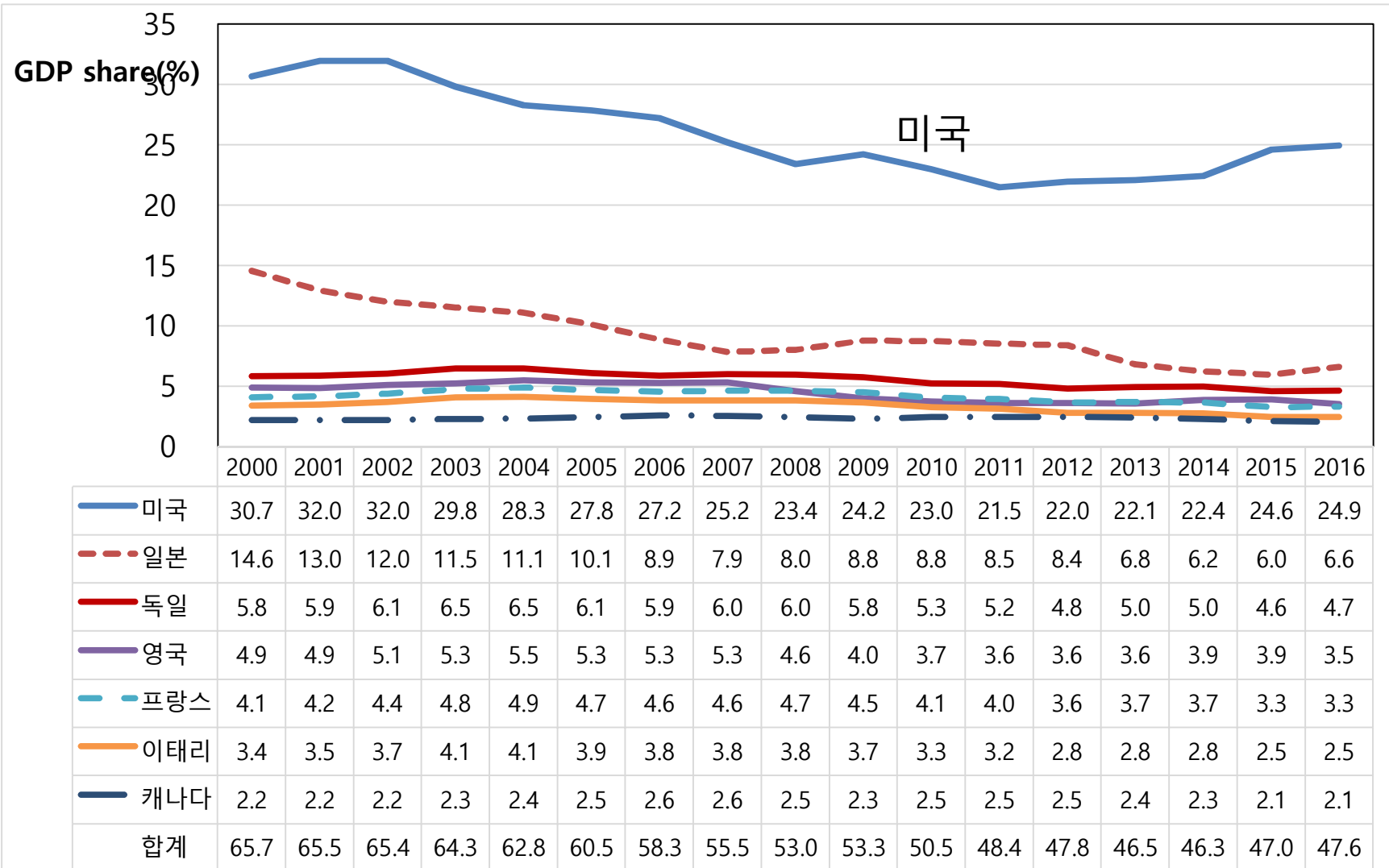
- 기존 대기업 존속, 신기업 창출 미미: 4차혁명 대응 늦고 (규제로)
- 공급측 대응 보다, 소득주도라는 수요측 부양 정책: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발생 가능성 증대?

세계 경제 구조변화 조짐:

미일의 재부상
중국의 감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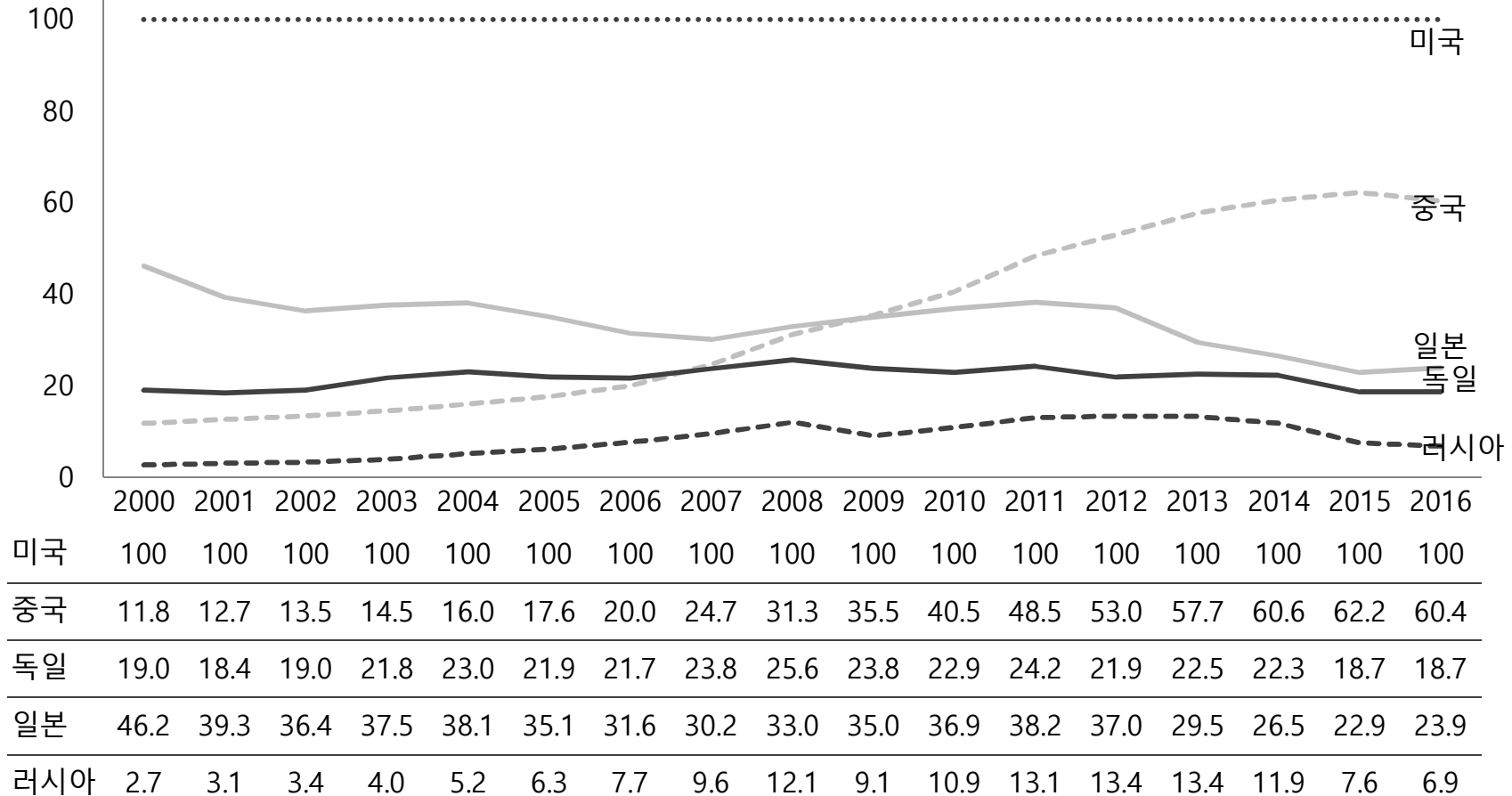
미국의 세계 GDP비중: 상승 역전

2001 = 32%, 2011 = 21.5%, 2016 = 25%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미국 GDP 대비 중국의 크기 = 60% 2016년 이후 감소시작

미국 대비 각국의 GDP share 비율(%) 미국 대비 중국: 2000= 10%, 2014= 60%; 15' = 62.2% 16' =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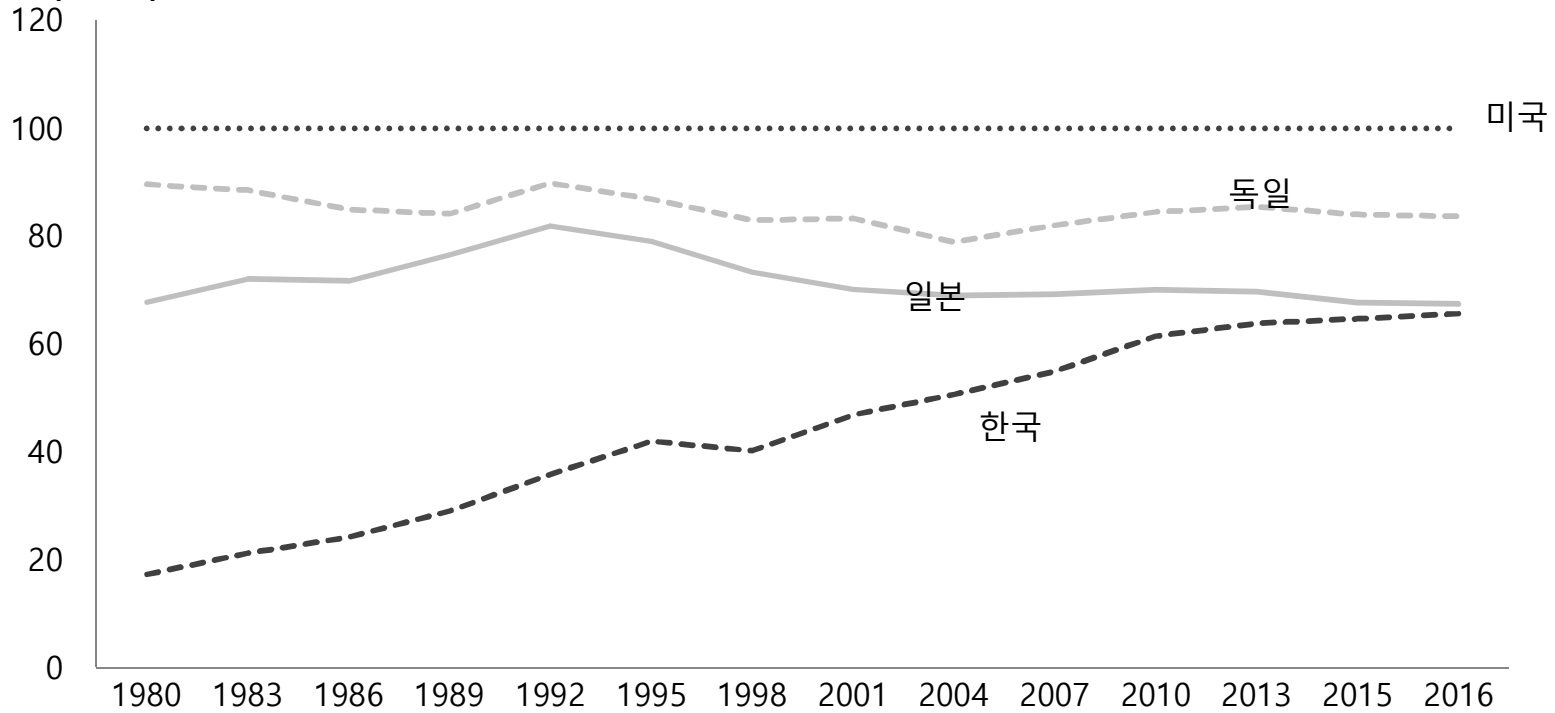


1872년: 미국GDP > 영국GDP; 1944 팩스아메리카 USA 비중27%, 영국 6%:
만약 2030 = 중국 > 미국: 150년만의 교체 -> 2040년 이후로 지체 가능성

일본과 독일의 미국 추격 실패 (미국 대비 인당소득 수준): 독일, 일본=92년 이후하락, 독일 2003년 슈뢰더총리 하르츠개혁 이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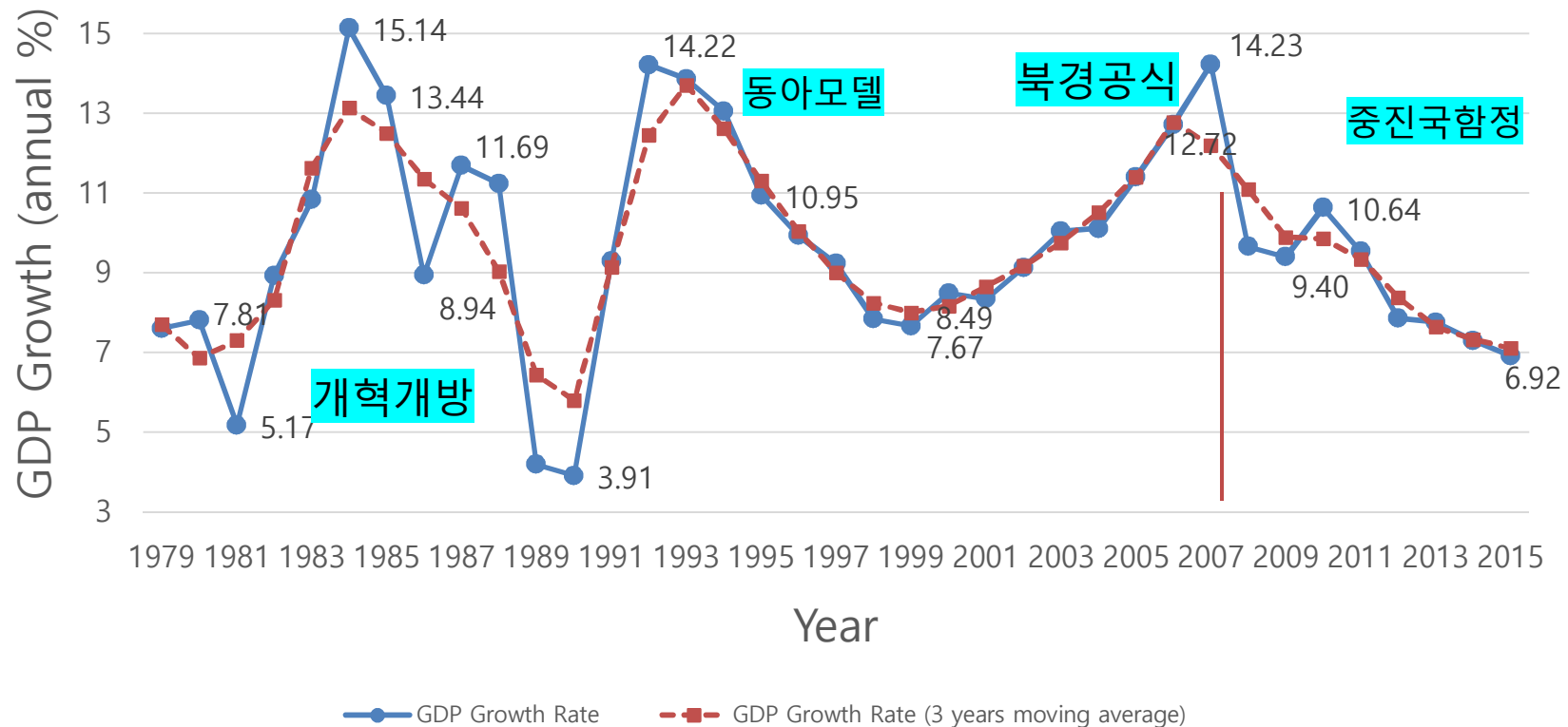
미국의 1인당 소득수준

대비 % (PPP \$)



키워드로 본 지난 40년의 중국경제: 개혁개방-동아모델/북경공식-중진국함정/성장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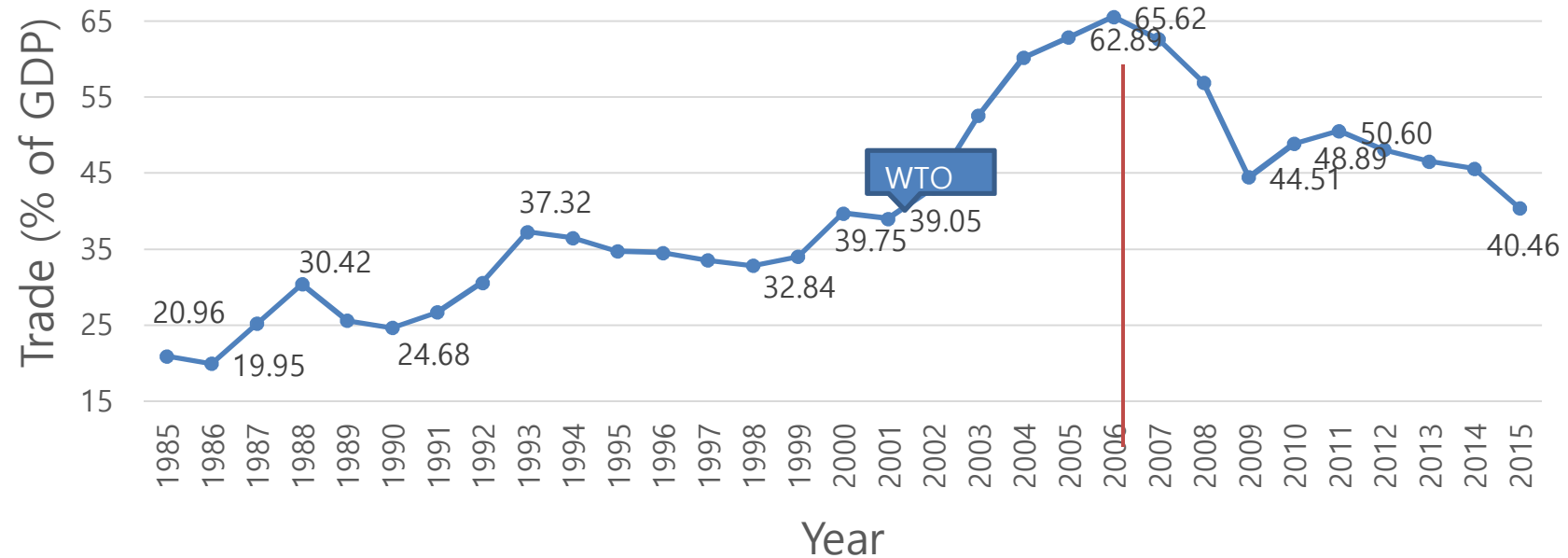
GDP Growth Rate of China



Source: GDP Growth Rate data is from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GDP Growth Rate (3 years moving average) is estimated by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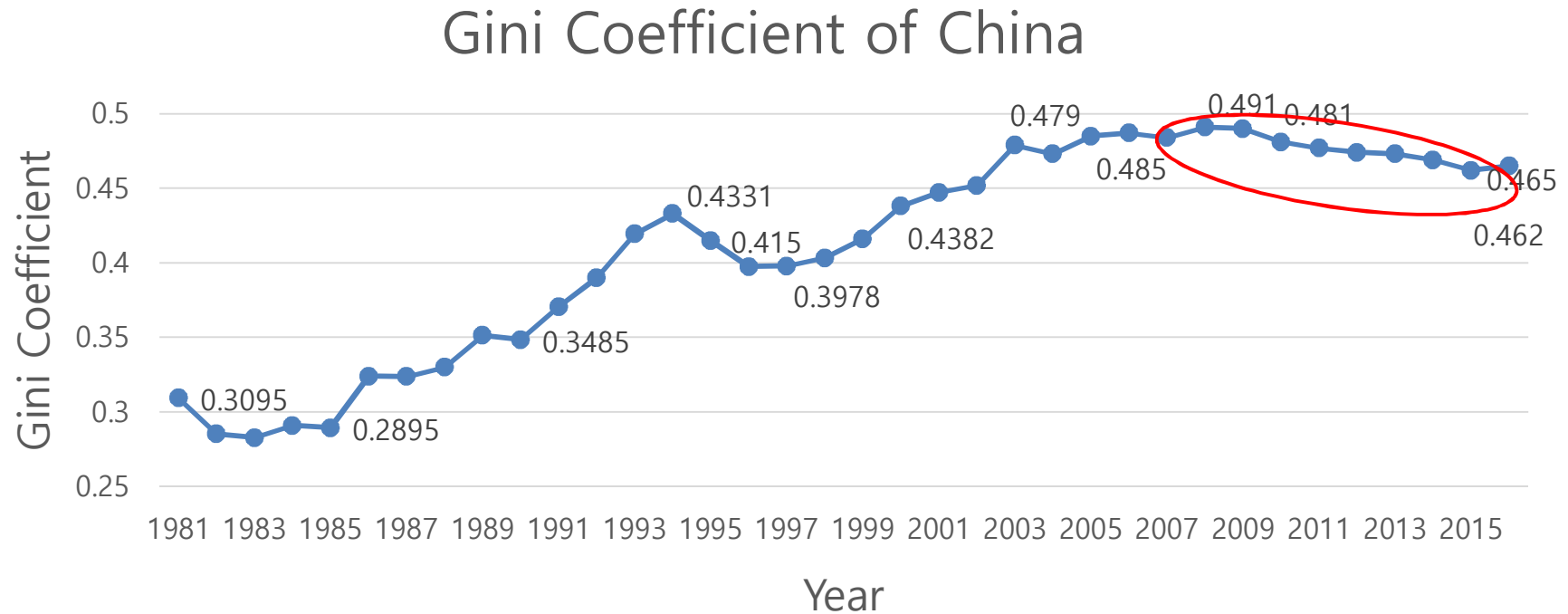
Trade to GDP Ratio of China:
peaked at 65% in 2006
무역의존도 하락 = 내수 확대

Trade of China



Source: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2009년 부터 분배호전 =기적 peaked at 0.491 in 2008



Source:

1981-2001: Ravallion, Martin, and Shaohua Chen (2007)

2002: Gustafsson, B., Shi, L., Sicular, T., & Ximing, Y. (2008)

2003-2012 : Reported by an NBS official at the Press Conference of Provisional Regulations on Public Notice of Corporate Information in January 2013

2013: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401/t20140120_502079.html

2014: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

2015: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601/t20160119_1306072.html

2016: http://www.stats.gov.cn/tjsj/sjjd/201701/t20170120_1456268.html

GDP Growth Rate by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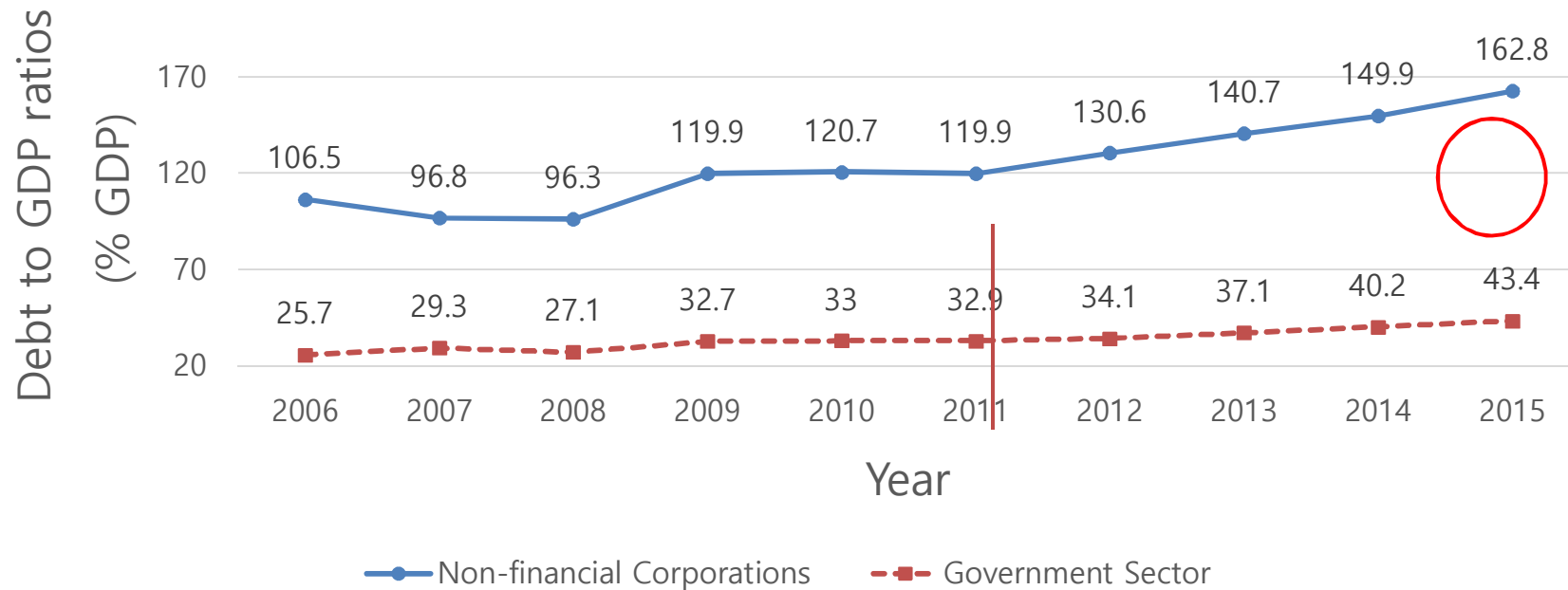
내륙이 연해보다 고성장 = 제2기적



중국 새 리스크: 기업부채 비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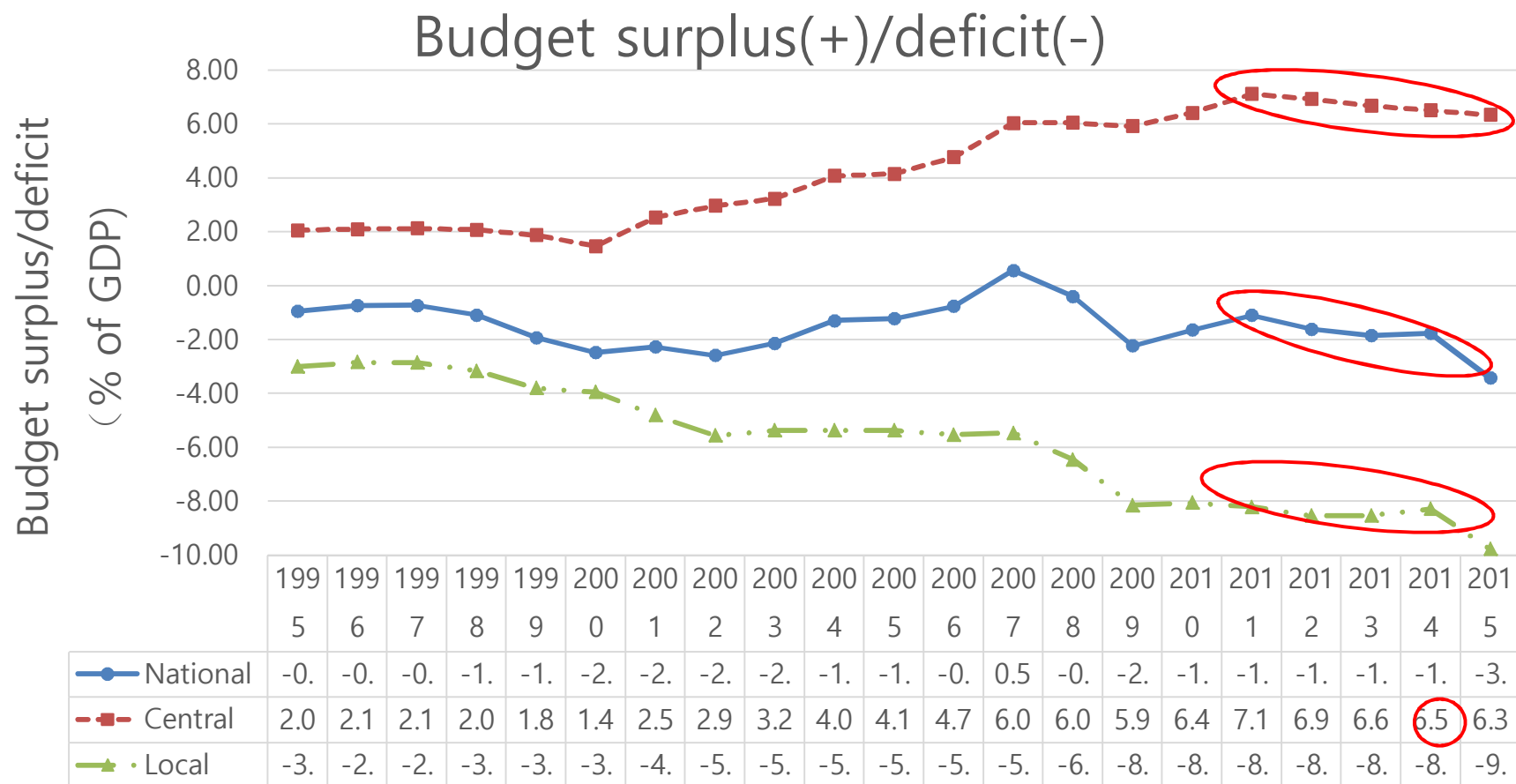
cf) 한국은 가계 부채

Debt to GDP ratios



중국 리스크: 정부 부채 45%, 기업부채 160% (한국은 100%, 미국 70%),
무디스의 중국 신용 강등 = 89년 이후 28년만.

관련 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급증: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based on data from various issues of Statistical Yearbook of China

중국경제 요약 평가

- 1) 그 동안의 중국의 추격은 동아시아 모델적 요소에 추가하여 북경공식이라는 중국 특유의 요소를 도입하는 경로창출형 추격에서 그 성공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적 수출주도의 대외 지향적 고속성장이었고, 이에 추가하여, 단주기 (short cycle) 기술분야로 특화하여 추격한 후 이제 장주기 (long cycle) 분야로 확대 다각화하는, 즉 한국의 추격전략과 비슷한 우회전략을 취하고 있다.
- 2) 나아가서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은 2008의 서방의 금융위기와 4차산업혁명이고, 이는 중국에게 비약 전략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경쟁력의 핵심인 추격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4대 산업인, 국방, 오락/영화, 금융, 교육에서의 추격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 (특히, 월가의 금융산업의 주도성에 도전할 기회).
- 3) 그러나, 중국이 과거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미국 추격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모델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서방형 자유민주주의) 와 다른 중국 특색의 개방 경제 모델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그림의 대강은 무역은 개방하되 금융위기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본이동성은 제한을 두는 경제 체제에,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르면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양식 민주주의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될 것이고, 현재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성을 볼 때 중화민족주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 후자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향후 최대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이다.
- 4) 이상을 종합할 때, 중국이 미국을 규모 면에서 추월하는 것은 기존 예상들 보다 10년 이상 지체되어 빨라야 2040년 이후이고, 일인당 소득면에서 급속히 추격하는 것은 위의 기회의 창을 잘 활용해야 가능한데, 경제가 정치적 요소 때문에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부채가 금융권 부실로 연결되는 대내적 경제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경제:

최근 한국경제 평가 = 외화내빈

- 1) 2017년 11월 현재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호조세
·
 - 지난 10월 기준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9월 산업생산, 소비판매, 설비투자: 전달보다 각각 0.9%, 3.1%, 5.5% 증가; 작년 6월이후 15개월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하였다.
- 2) 금년도 3%성장은 무난(그러나 세계 평균 하회: 3.6%);
내년도 3%라고 해도 평균 (3.7%보다 밑).
- 3) 그러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구조적인 지표들: 역대 최악 수준
 - 제조업 평균가동율: 2013/1월 79%→ 4년여 만인 지난 9월 71.8%로 추락,
 - 노동생산성은 OECD회원국중 바닥수준이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에서
 - 제조업 · 대기업 중심의 산업쏠림현상은 심화
(반도체 수출 비중: 9%→16%; 상장사 이익 중 삼성 비중 30%)
- 4) 외화내빈 경제 =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골병.

단중기 리스크: 몇가지 역전 현상

- 1) 생산성 역전? 원래 낮고
- 2) 금리 역전
- 3) 법인세 역전
- 4) 임금 역전
- 5) 전기세 역전 (탈 원전으로)

⇒ 성장율 역전
⇒ 잠재성장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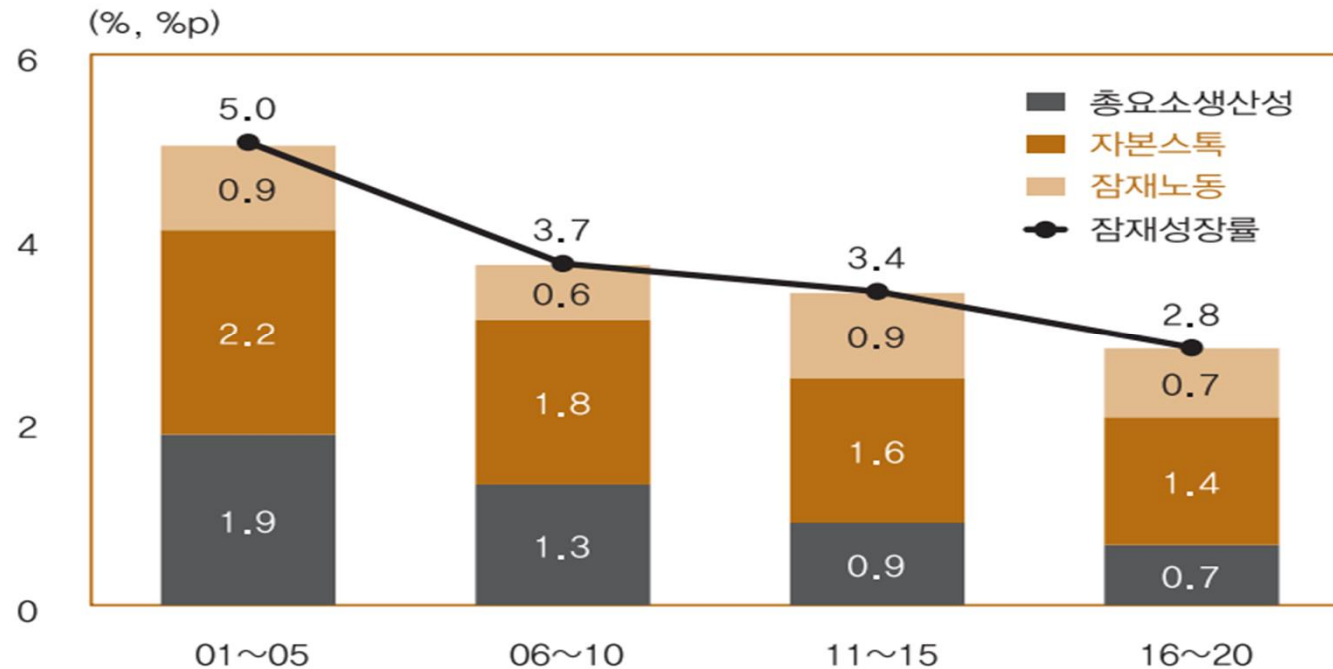
2018년 단기전망: 소득주도 성장에 달려

- 2018년에는 2017년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과 설비 투자의 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약화될 것
- 내수와 일자리를 떠받치던 건설 부문도 8.2 부동산대책과 SOC 예산 축소로 위축 걱정해야 할 상황 (?)
- 이 수출과 투자의 빈자리를 소비가 얼마나 채워줄 것인가
-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패키지가 얼마나 소비를 끌어내는가가 전체 경제 성장률을 결정할 것.
- 그런데, 이 신종 낙수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희망사항):
(브라질 경우 인플레이; 한국 해외소비 가능성도)
- 왜냐면, 돈을 풀어도 안 돈다:
예, 요구불 예금 (지금액/잔액) 월 회전율:
2011년 1월" 36회 ->17년 4월: 18회
-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 (2번 예상)으로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 자본유출 가능성?
저 금리 유지 부담: 올려야 하나?
- (그러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이자 비용으로 경기 위축:
전체 1,400조 가계부채 중 800조가 유동금리 부채: 1%p인상은 8조 추가부담)

잠재성장율의 추세 하락은 한국경제의 회색코뿔소

회색코뿔소가 온다 (미셀부커) =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뻔히 보이는 위험
(블랙 스완과 반대 = 금융위기):

〈그림 8〉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¹⁾



주: 1) 생산함수 접근법 기준

모든 나라 감소하나 한국 감소 속도 빠르고, 미국은 2%대에서 상향반전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

- 위기의 핵심=낮은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산업경쟁력 저하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 1) 주력기간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 2) 미래성장동력의 부재,
 - 3)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 4)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유연성도 낮고 안전망도 약하고).
- =>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은 그 결과적 현상인 측면; .
- => 양극화 현상은 저성장의 결과이자 성장의 장애요인.

혁신 성장 = 2018년 한국경제 두번째 키워드:
앞 두 바퀴 (소득, 혁신) vs 두 뒤바퀴 (공정, 일자리)
=> 네 바퀴 = 사람중심 경제

1)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 앞 두 바퀴가 너무 다르다.

-- 소득 주도 성장 바퀴는 크고 둥근 반면, 혁신 성장 바퀴는 울퉁불퉁하고 조그맣다. 1~2년이야 덜컥거리며 굴러가겠지만, 오래 못 갈

2) 최근 혁신 성장 정책 추가 나옴=다행:

- 11월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제2벤처 붐
- 대중소 선순환 (창업-투자-엑시트)
- 스톡옵션 비과세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크라우드 포지티브 규제; 피인수 중소벤처 대기업 편입 유예 3년에서 7년;
- (cf 과거 벤처 붐 (2000년 3,500개 창업)죽이기 =
- 2002년 4대 건전화 정책 : 코스닥 거래소 합병 (한해 200개에서 20개);
- 스톡옵션 해택 축소; 5%R&D 자동 벤처 인증에서 기술신보의 보증 요구;
- 중간 회수 시장인 M&A 하던 기술거래소도 기술진흥원에 통합

3) 아직도 개선 점: 돈이 아니라 제도/규제

- 정부 돈은 한계 중소기업 자동화에 투자: 신기술 기업은 규제 개선 관건

우리에게 딱 10년이 남았다 (이순신의 12척)

1) 4가지 10년

초고령화 10년: 65세 이상 20% (2026년)

- 4차혁명 티핑 포인트 10년 (2030)
- 중국 제조대국 -강국: 10년
- 우리가 다시 3%이상 잠재성장 회복 10년 시간 존재

2) 유리한 상황/조건

정권 인기 좋을 때가 구조조정 적기 (IMF) cf) 일본의 교훈: 경기부양책 20년
재정도 흑자

3) 역으로 최저 임금 인상이 자동화 촉진 (장기효과 긍정, 단기 부정; 기존 예상과 반대) 단 노동시장-양극/분단화 해결해야.

즉, 중소 벤처 - 대기업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4) 신산업정책 = 장기비전과 단기 실행 일치/정합: 따라하기 말기: 4+알파

- 상하형 -> 하상형 및 상호협력
- 중소 벤처의 혁신화, 국제화 및 에 5년간 50조 투입하자 (스마트 공장화)
(cf: 지난 5년간 4회 50조 추경: 저성장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으나 효과 무);

5) 수요 + 공급 두 바퀴라는 시각도 필요

중국과 4차 산업 혁명 :

둘다 기회이자 위협 요인

-> 중국을 넘어서고, 4차혁명을 끌어안는
한국산업의 전략

특히 중소벤처에게 기회!

중국+4차혁명-> 한국 중소기업 기회?

1) 9개 산업 분석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농업, 게임;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공유경제; 온라인 결제

2) 한중 Mode 모색: 대결: 수평적 협업/ 수직적 공급관계; 피섞기

3) 중소벤처에 새 기회의 창

- 바이오 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추세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서 공동연구, CRO (의약연구전문 기업), CMO (의약제조전문)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소벤처기업에게 열리고 있다.
- 스마트 헬스의 경우에도 틈새 지향적인 각종 앱개발 및 웨어러블 및 모바일 기기 등 방면에서 중소벤처의 사업기회
- 스마트 농업의 경우에도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나 CEA' 기업 사례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틈새형 농작물의 생산 및 유통 면에서 다양한 기회
-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에도 'TOSS' 사례처럼 일반적 분야의 결제가 아니라 환전, 선물하기, 더치페이, 축의금 보내기 등 틈새 분야의 결제시장을 공략하는 다양한 중소벤처창업

4) 그러나,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 cf) 중국: 비처방 약은 인터넷 판매 허용

-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에너지 데이터가 비공개->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고,
- 바이오: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 온라인 결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삼성 페이 = 무료서비스; 기존 은행카드사가 지속; cf) 중국은 QR코드
- 스마트 헬스: 원격 진료, 건강관리 서비스법, 의료기기법 등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4차혁명-> 자본주의 침체 극복?

1) 창업확대:

창업 및 소규모 기업에 보다 유리한 기술적, 경제적 환경 제공;

- 인공지능의 발달 : 사무직 노동 대체로 인건비 절감
- 클라우드 펀딩 :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자본조달 가능
- 3D 프린팅 : 낮은 비용으로 시제품 및 소규모 상품 제작 가능

2) 고용창출: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고의 효과를 상쇄; 일자리 증가

3) 유연근로; 시간 절약; 노동참가 확대, 출산 증가:

- 유연 근무제의 확대는 일과 여가 및 양육 시간을 자율 조절;
- 여성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및
- 출산률 증가 가능;

4) 궁극적으로 수요 증대 --> 자본주의를 침체로부터 구한다?

결론과 요약

한국경제의 비전 =

소득주도도 아니고 혁신주도도 아니고,
이 둘을 넘어서는 그 보다 높은 차원인

‘인간중심의 경제’

세계경제포럼 2030 비전: '인간중심성' (human-centered Society)

- 1) 2017년 11월 중순에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미래위원회
 - 2030년의 비전 = **기술이 아닌 '인간중심' (human-centered)의 사회**
- 2) 4차혁명기술들은 인간의 대체 아니라 인간의 지적/물적 능력을 보완
 - 인간을 증진 (human enhancement) 시켜서, 고도화된 인간.
 - 예를 들면,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로봇틱스는 인간의 물리적 능력을 높여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화하여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힘들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들은 안전하고, 즐거우면서도 창조적 일을 함
- 3) 인간들은 개선된 유전자를 가지고 되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와 수명연장 및 높은 지적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게 되어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해짐
- 4) 이러한 인간 능력의 증진 과정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능력이 향상 된다면,
 -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
 - 노인과 청년의 격차,
 - IQ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격차도 줄 수 있기에,**=> 보다 포용적인 사회가 가능**

한국도 4차혁명으로 새 선순환 균형 달성:

과거= 고 경제성장, 고인구성장, 고경제성장, 다 일자리
-> 중 경제성장, 저 인구성장, 소수 고부가가치 일자리

1) 4차혁명이 가지는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패러다임은

- 고령화와 인구성장 정체 즉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 동시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제고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중소기업의 고급화를 통해서 해결

2) 새 선순환 구조와 3가지 균형.

- 인구가 적어져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
- 세가지 측면의 균형,
즉 인구균형, 공간균형, 대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새로운 균형상태로의 정착 가능

- 감사합니다

이 큰
홈피

(www.keunlee.com)